

[사회]

‘학생인권조례’ 광주서 재추진

오늘 ‘세계인권의 날’...전교조 등 15개 단체 공식 선언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광주지역에서 재추진된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에 ‘교권침해’를 이유로 한 반대의견에 따라 한차례 조례제정이 무산된 적이 있어 조례제정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예고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학생인권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제60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0일)을 맞아 9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전교조 광주지부 등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 뒤 2006년 2월까지 교사·학생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17차례에 걸쳐 의견을 듣고 사안까지 마련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교육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자 조례 제정 추진이 중단됐다. 새 조례안은 지난 2006년에 마련했던 사안을 토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기존의 사안은 총칙을 포함해 8개 장, 37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2개 부칙을 담고 있다.

사안에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자치에 관한 권리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적당한 절차를 누릴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학생인권 보호 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구 등 학생인권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겨 있다.

이 가운데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 위 참관 및 발언권 보장이나, 학생 생활 침해 금지, 교칙에 신체적·심리적 폭력 금지 조항 명시, 소지품 검사 및 사적 기록물 열람 금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 금지 등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엔 민감한 내용들이 다

수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6년 좌절됐던 것처럼 조례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선출된 전 원별 광주시교육위 의장이 공약으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 교장을 비롯한 사업학교 경영자들이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산 1조원이 넘는 문화산학협력사업 계획이 있어 단 5일 만에 수립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광주시와 서구는 비난여론을 피하려

추진위는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을 검토한 뒤 초안을 작성해 공청회, 토론회, 서명활동 등을 전개하고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세하택지지구 도면 유출 주민 419명 국민감사 청구

광주시 서구 세하동 일대 주민 등이 ‘세하택지지구 계획도면 유출과 해제 이후 문화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9일 광주시 서구 세하동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 419명은 이날 ▲세하택지지구 계획도면 유출과정 ▲택지지구 지정해제 이후 고시지정 당시 수립계획 ▲세하지구 문화산업복합단지 계획수립 여부 등을 묻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우편 발송했다.

이들은 “예산 1조원이 넘는 문화산학협력사업 계획이 있어 단 5일 만에 수립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광주시와 서구는 비난여론을 피하려

고 면피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세하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해 문화산업복합단지 지정하겠다는 광주시의 공문을 받고 지정을 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구 세하·매일·벽진동 97만㎡를 세하택지지구로 지정,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월 택지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보상금을 노린 ‘강통주택’들이 들어서자 택지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문화산업복합단지 지정을 결정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0분 해질 17시 20분 | 달출몰 14시 53분 | 월출몰 04시 25분

햇살 좋은 날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구분	구름	최고/최저
광주	구름 조금	5/17°C
여수	구름 조금	9/16°C
완도	구름 조금	6/16°C
구례	구름 조금	2/16°C
해남	구름 조금	3/16°C
장흥	구름 조금	2/17°C
고흥	구름 조금	3/17°C
순천	구름 조금	2/17°C
영광	구름 조금	6/16°C
진도	구름 조금	5/15°C
전주	구름 많음	6/16°C
남원	구름 많음	0/15°C
속초	구름 조금	11/16°C

구분	풍향	풍속	미물	설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목표	12:00 ~ 04:46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07:03 ~ 00:26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17:36 ~ 13:11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최저/최고	4/11	1/10	-1/7	-3/7	-2/8	-1/9



“지하철 이용 편리해요”
광주 지하철 양동시장역의 에스컬레이터 승객이 마무리돼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는 시비 25억원을 들여 이 역에 에스컬레이터 10대를 설치하고 9일 준공 설명회와 시승식을 가졌다. /위정림기자 jrwi@

잡은 건 쏘가리 한마리지만...수달에 고통 준 낚시꾼 6명 입건

환경부가 지정한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서식지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낚시를 한 P(35)씨 등 낚시꾼 6명을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들 6명의 낚시꾼이 잡은 것은 쏘가리 한 마리. 그러나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낚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입건된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을

비롯한 천연기념물 8종, 멸종위기종 7종, 포유류·조류·야생 등 175종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수렵·어로행위가 금지돼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수렵·어로행위로 수달 등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잡은 것은 쏘가리 한마리지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삼필기자 kps@kwangju.co.kr

수완지구·오치동에 고교 3개 신설

내년 3월 개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9일 “광산구 수완택지지구에 남녀공학 2개교, 북구 오치동에 여교 1개교, 광양시에 남녀공학 1개교 등 4개 고등학교를 2009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3개 고교가 동시에 개교하는 것은 1987년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광주 수완지구에 들어설 장덕고와 수완고는 남녀공학으로 각각 8학급, 3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오치동

문영여고는 10학급 405명을 모집한다. 광양시에 들어서는 광영고는 남녀공학으로 8학급 규모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으로 건설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산구에 살면서 서구나 북구 쪽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됐다”며 “개교 전인 12월 1일자로 수완지구 두 학교에 겸임 교장을 부임해 인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부동산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요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물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군민시설/월보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월보 대표이사 011-4111-4111/011-5511-5511	주목/재개발 평야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종류	최저가	비고
영동동 대1,21,47	3999㎡	297㎡	월보 19세대	
영안동 대154,2,416	14㎡	799㎡	오교소	
영남동 대185,2,1077	66㎡	46㎡	대형주택	
영북동 대137,2,223	6942㎡	3945㎡	신원사	
회동동 대93,2,174	3949㎡	2945㎡	상기,사무실	
신원동 대317,2,191	5922㎡	3946㎡	아파트	
신안동 대213,2,889	2296㎡	891㎡	모텔,목욕탕	
금호동 대114,2,234	7943㎡	49㎡	상기,주택	
남평동 대197,2,380	4394㎡	30㎡	여가,주택	
대안동 대287,2,653	22㎡	19㎡	상기,주거	
소태동 대28,2,37	1945㎡	528㎡	풍경,공원	
무성동 대727,2,1431	6792㎡	3799㎡	지주,서비스	
신원동 대60,2,113	39㎡	291㎡	원형,2세대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성

백암 울릉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3만 5천원

※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서비스

포함사항 수송비, 패스권비, 육로관광, 숙박비, 조식2회, 중식3회, 석식3회, 백암관광, 울릉도 케이블카, 모노레일, 입장료, 불포함-기타 개인경비

제 1일

광주-백암(전용차량)

07:30 광주역미팅
12:30 경남양산중식
14:00 경남양산 연양지수정 통굴
16:30 경북 영덕 삼사해상공원
19:00 경북 울진 백암온천 숙박

제 2일

포항-울릉도(전용차량)

06:30 기상 후 조식
07:00 숙소 출발
09:00 포항 여객터미널 도착
10:00 울릉도행 포항 출발
13:30 중식
15:00 육로관광
18:00 포항 도착 후 석식
19:00 포항도착

제 3일

울릉도-포항-광주(전용차량)

07:00 기상 후 조식
08:00 봉래폭포,촉대바위(모노레일탑승)
11:00 중식
11:30 케이블카 및 독도박물관 관람
15:00 울릉도 출발
18:00 포항 도착 후 석식
23:00 광주도착 후 그리움집으로

MEALS 중 : 식당 석 : 속소

(주)나산항공관광여행사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9-2번지 제일은행 4층 T.062-224-0009 F.062-223-8077

생촌동 2층주거지역매매 대지2339㎡ 최고매매 12억5천만 원, 불발, 고교, 대학입학	영동 공영 임대 크레인 2대 - 공영 388㎡ [공공 사무실 98㎡] 최고매매 1억4천만 원, 불발 임대 가능 임대문의 010-2811-5588	두암동 최고평형 학원 건물(84㎡) 권리금, 시설비 없음 좋은 조건 임대 임대문의 010-7570-7525	누른동 8층도매 대지35,21400㎡ 임대료 2억4천원 최저가 4억1천원	학동 금호메트로빌 47평형 임대료 2억4천원 최저가 1억8800만 원	회정동 이면전 세상 67평형(185.78㎡) 임대료 4억9000만 원 최저가 3억4300만 원	양동 리빌 18개도매 대지57,2182㎡ 임대료 4억3000만 원 매매 1억8000만 원
--	--	---	--	--	--	---